

“아파트 지어도 사는 사람 없어” 전남, 악성 미분양 ‘전국 최다’

국토부, 11월 주택 통계...악성 미분양 2452호·미분양 3631호
광주, 악성 미분양 41호...주택 인허가·착공 전년비 66% 감소

전국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관청의 사용검사 후에도 팔리지 않는 주택을 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린다. 전남은 지난 11월 준공 후 미분양 2452호를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1000세대 넘는 주택 청약이 진행됐지만, 모집 가구수에 대비 청약 접수 인원은 턱없이 모자랐는데, 부동산 경기가 좀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의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1월 전남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28호 감소한 2452호로 조사됐다. 지난 2023년 말(1212호)과 비교해보면 2.03배 증가한 수치로, 1000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1695호)보다 많았다. 문제는 앞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전남에서는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

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 한양건설이 분양에 나선 ‘순천 한양립스 파크포레’의 경우 205세대 모집에 98개를 접수하는데 그쳤다. 이어 464세대를 분양한 ‘순천 지에이그린힐 하이드윈’은 청약통장 125개를 접수했고, 500세대가 넘는 또다른 단지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순천은 전남 동부권의 대표 ‘배드타운’으로 타 지자체에 견줘 주택 수요가 많은 편이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비껴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의 지난 11월 미분양 주택은 3631호로 지방에서는 대구(8175호), 경북(7093호), 경남(5213호), 강원(4347호), 충남(3646호) 다음으로 많았다. 전남보다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이 많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전남이 1위라는 의미는, 타 지역의 경우 사용검사 전 갖은 혜택으로 계약자를 찾거나 건설사가 남은 물량을 떠안은 반면, 전남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의 경우 지난 11월 미분양 1243호, 준공 후 미분양 415호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주택 인허가와 착공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전남지역 주택 인허가는 516호로,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5208호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1만6912호) 대비 69.2% 감소한 수치다. 광주 또한 지난달 225호로 11월까지 누적 3904호를 기록, 전년(1만1226호) 대비 34.8%에 불과했다. 주택 착공은 전남의 경우 11월까지 전년(8026호)의 89%인, 누적 7140호를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 11월까지 4082호로, 전년(6426호)의 63.5%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울헤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 시장이 최소 상반기까지는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등으로 매매 시장이 이미 거대 소강상태에 놓인 가운데 탄핵소추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물론 전반적인 경기 역시 침체 조짐을 보여서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탄핵 정국 지속 여부 및 경기 여건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악성 임대인 23명 명단 공개...전세금 421억 5300만원

1인당 평균 13억원 채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광주·전남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때때는 전세 보증금은 421억 5300만원에 달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들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20명, 법인 3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두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입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

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0.9세이며, 1인당 평균 13억3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명, 40대 4명, 50대 2명, 60대 2명, 70대 1명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거주하는 23세 A씨로 1년 가까이 보증금 3억 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최고령자는 서구 치평동에 거주하는 71세 B씨로 5억6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인으로는 서구 매월동에 주소지를 둔 기업

으로 약 169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177명(개인 1128명·법인 49개사)이었으며,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9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설산업 5조 투자 땀 5만4000명 고용 창출”

연관산업 생산 효과 5조1천억

건설산업에 5조원을 투자할 경우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5만4000명 규모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 산업 생산 효과도 5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건설 활동이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집체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가 허무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높은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당 고용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평균 고용 유발 인원 6.5명보다 1.7배 많은 것이다. 건설 활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 기계·장비 등 연관 산업 제품을 다량 사용함으로써 생산 유발 효과도 높다. 건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20년 기준 2.017로, 전 산업 평균(1.875)보다 10.5%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건설산업의 최종 수요가 증가하면 전체 산업의 고용과 생산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투자는 건설산업뿐 아니라 연관 산업에 대한 고용을 창출한다. 보고서는 202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건설투자의 고용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산업에 대해 5조원을 투자할 경우 3만1575명의 건설산업 내 고용이 창출되고, 연관 산업의 고용도 2만2441명 발생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속제품 1451명, 시멘트·콘크리트·점토 1083명, 고무·플라스틱제품 623명, 전자기계 600명, 철강 423명, 일반기계 40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조원 규모의 건설투자는 연관 산업 전체에 5조580억원 규모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제조업 생산 효과는 2조7970억원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조기 조성,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에 대한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세열골

“서민 주거 안정·건설현장 안전관리 최선”

정태성 LH 광주전남본부장



정태성(사진) 제16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2일 취임했다. 정태성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LH에 입사해 다양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광주전남 단지사업부장, 분사 도시재생사업처장,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의왕과천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신도시 개발 및 도시재생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개발 전문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태성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마중물 역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확대, 그리고 철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성그룹, ‘BS그룹’으로 사명 변경

새 기업 CI도 공개

중견 건설사 한양이 속한 보성그룹이 ‘BS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BS그룹은 2일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그룹 이미지 통합을 위해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CI)를 공개했다. 새 CI는 부동산 개발, 정정에너지, 건설·레저 등 그룹의 주력 사업과 도전, 열정, 창조의 경영철학을 상징하는 파랑, 주황, 초록색 등 3색 심벌에 ‘지속가능성을 넘어’ (Beyond Sustainability)라는

의미의 워드마크 ‘BS’를 결합한 형태다. ‘지속가능성을 넘어 친환경 미래도시 및 정정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그룹 측은 소개했다. 주택 브랜드 ‘수자인’으로 알려진 주력계열사인 한양도 ‘BS한양’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등 ‘BS’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룹은 건설·부동산 등 주력 사업 분야에서의 성과를 발판삼아 정정 에너지 디벨로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